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5일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전북혁신도시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금융중심지 실현 위해 구체적 전략 고민해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북도·전주시 등과의 협력 중요, 공단도 역할 찾을 것”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5일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전북혁신도시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진 이사장은 전주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전라북도도와 전주시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단도 역할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이사장은 전북에서의 공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여론의 기대가 큰 것과 공단의 활동이 미비하다는 지적

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안됐으며,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취합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전주 금융 중심지 추진의 주체는 전북도와 전주시임을 확인시키고, 공단은 지자체들을 도와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불분명한 역할부터 정립하고 구체적 계획과 역할을 분담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임 김성주 이사장이 추진했던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 “그동안 공단이 추진했던 각종 금융기관 유

치, 기금운용 인력 양성 문제, 호텔 및 컨벤션 등은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핵심이 되는 구체적 전략과 과제를 만들기 위해 기존 사업들을 가다듬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의 금융생태계 조성 등은 입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자산운용 중심으로 추진되는 안이 일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전주 금융 중심 도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작업들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지난 2개월간 전북지역의 열망과 과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들었다고 강조하면서, “전주시에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동시에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제적 수준 업무 실현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
신임 조규혁 이사장 취임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의 제4대 신임 이사장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조규혁 박사가 지난 11월 1일 부로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조규혁 박사는 지난날 3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 보증 업무 실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신뢰성보증 업무(QA, Quality Assurance)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산화결과 활발한 소통으로 국민을 위한 전문학술 연구회로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뢰성보증(QA, Quality Assurance)은 시험의 계획, 수행의 결과 등이 임상 및 비임상 시험 규정에 준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업무이다.

조규혁 박사는 1987년부터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시험동물 및 질환모델 연구, 신뢰성보증 업무 등 독성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금은 전북분소 전북QA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한편,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 The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은 임상 및 비임상 시험의 신뢰성 보증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학회로, 신뢰성 보증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정보 교류 및 인력을 양성하는 학술단체이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곧있으면 김장철... 비용 ‘하락세’

배추·무 가격 ‘인정’ 3주 전 보다 23.3% 내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올해 4인 가족의 김장비용은 지난달보다 23.3% 하락한 30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이병호)가 김장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11월 4일 기준으로 지난 3주 동안 김장재료 구입비용(배추 20포기 기준)을 모니터링 결과,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와 무는 각각 52%와 28% 하락한 반면,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김장용 굴과 작황이 부진한 고춧가루는 각각 8.7%와 6% 상승했다.

aT는 김장재료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비축용 견고추를 집중 출하하고 있으며,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 11월과

12월에 배추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aT는 김장철을 맞아 aT블로그(blog.naver.com/gr22nade)를 통해 12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김치명인과 유명 셰프가 알려주는 ‘김장김치 맛있고 쉽게 담그는 비법’ 영상을 매주 한편씩 소개할 예정이다.

aT 이기우 수급이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노지채소의 가격하락과 정부의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으로 올해 김장비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김장채소 소비확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특판 행사를 잘 활용하면 알뜰한 김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재료 구입비용의 상세정보 등 관련 자료는 aT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참여 대상자 모집

플랫폼 내 개별 페이지 제작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문화를 확산하고자 구축 중인 전북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은 유희공간, 물품과 재능, 경험, 전문지식 등 유무형 자원의 온라인 거래시스템으로 플랫폼 내 개별 페이지 제작을 지원한다. 기입 페이지는 전북도 통합 공유

경제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하여 제작되며, 검색 및 결제 등 진행이 가능하다.

공유경제 사업을 희망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3명(개소)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a.kr)와 사회적경제팀 공유경제 담당(063-711-2076)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발효식품 판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도-생진원, 내일부터 이틀간 주말장 행사 진행
배추김치·김장용 젓갈·치즈 세트 등 판매

전북도,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북도청 일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라북도 발효식품 주말장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구매자는 차량에 탑승한 채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제품은 판매자가 차량에 직접 실어준다.

이번 드라이브스루 행사에서는 배추김치, 목은지, 백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김장용 젓갈, 장아찌 세트, 치즈 세트 등 다양한 전북도의 발효식품이 판매된다. 생진원은 원활한 판매를 위해 총 9개의 판매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방문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차량 대기 하는 시간동안 차안에서 다양한 발효식품을 볼 수 있도록 세계발효식품 전시, 전북도 향토음식 전시 등 다양한 모형전시도 함께 선보

일 예정이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e-엑스포 등과 같은 온라인 방식으로 도내 식품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요청이 많아 이번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기획했으며, 전라북도의 우수한 발효식품 구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최재용 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 기업을 돕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나, 많은 도민들께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꽃꽃이엔 ‘국산 심비디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시장성 ‘인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대형 화분 위주로 거래되는 난 시장에서 꽃다발, 꽃꽂이용 등으로 쓰임새를 넓힌 국산 ‘심비디움’ 품종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1992년부터 ‘심비디움’ 품종을 육성하고 있는 농진청은 중국 수출이 늘고 국내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절화용(자른 꽃)’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aT(에이티)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현황을 보면, 국산 품종 거래량은 3년 전과 비교해 화분용은 1.6배, 절화용은 3.47배 증가했다. 거래 품종도 2017년에는 화분용 7품종, 절화용 3품종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화분용 11품종, 절화용 9품종으로 다양해졌다.

농진청은 국내 육성 ‘심비디움’ 중 절화용으로 인기를 끄는 5품종을 소개했다. ‘골드선’은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며, 11월에 꽃이 활짝 피는(극조생종) 품종이다. 2020년 1월에는 분당(줄기당) 최고가가 4,100원을 기록해 외국산 못지않은 품질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그린하니’는 다른 품종과 달리 은은한 향기가 나고 꽃 수도 많다. 최근 3년간 ‘그린하니’의 절화 평균단가는 1,723원으로, 심비디움 절화 평균단가(1,611원)보다 높다.

‘해피데이’는 꽃대가 굵고 꽃 수가 많아 꾸준히 사랑받는 품종이다. 2018년 일본 수출 당시 분당 472엔(4,597원)을 받아 외국 품종 최고가(313엔)보다 높게 거래됐다.

‘러블리스마일’과 ‘샤이니핑크’도 꽃 수량이 길고 꽃대가 곧아 꽃다발과 꽃꽂이용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러블리스마일’의 절화 수평은 27일로, 국산 품종 중 가장 길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인희 화훼과장은 “심비디움, 팔레넬리스로 대표되는 우리 난 품종 보급률은 2008년 1.4%에서 지난해 19.4%로 증가했고, 외국 품종 사용료 부담액은 2008년 26억원에서 2019년 8억6,0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며 “국내 소비뿐 아니라 수출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색과 크기의 심비디움 품종을 개발해 국제 시장에서 우리 품종의 인지도도를 높여도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라북도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

어려워하는 소상공인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전은·금감원 전북지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은 5일 전주시 진북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회 사무실에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달식에는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용실 지원장,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회 임규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기관은 영업활동 제한과 매출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기부된 500만원 상당의 물품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사업장 방역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양기관은 이번 방역물품 전달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녹색분야 혁신 우수기업 대출 우대

NH농식품그린성장론

다. 기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범주에서 ‘G’를 ‘Growth’ 성장 분야로 대체한 점이 특징이다. E(환경) 분야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녹색경영기업 환경성 평가 A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 기업, 스마트팜 농가 등이 우대 대상이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S(사회) 분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HACCP 인증,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인증 기업 등은 G(성장) 분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우 본부장은 “NH농협은행은 친환경 가치소비 확산 등 농식품 소비트렌드 변화를 선도하고, 그린뉴딜과 관련한 기후위기 대응에 혁신적인 도내 농식품기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대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과다의료비용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 운영기간은 이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전 국민으로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국민참여-국민토론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올바르게 하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오남용으로 발전해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전 국

전주완주임실 농어촌공

고령 농가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이종화)는 5일 고령 농업인과 장애인 등 20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 보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올해 농어촌공사의 ‘행복충전활동’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전주완주임실지사의 아이디어로, 완주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의 지원을 받아 전주완주임실지사 어려운 농가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해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종화 지사장은 “대부분 농업인이 고령화되어 가스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